



## 스위스여행박람회(Switzerland Travel Exchange) 2017.

스위스정부관광청, ‘다시, 자연의 품으로’라는 여행박람회 선보여  
2017년 새로운 테마, 백 투 네이처(Back to Nature)를 만나는 스위스여행박람회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여행  
스위스 지역 담당자들에게 직접 듣는 지역 소개

스위스정부관광청이 주최하는 스위스여행박람회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국내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2월 14일(화)부터 15일(수)까지 열린다.

2017년 스위스정부관광청의 주제인 “다시, 자연의 품으로 (Back to Nature)”와 관련한 다양한 지역 소개와 더불어 스위스 현지 지역 담당자들의 생생한 현장 정보가 어우러질 예정이다. 박람회장 안에는 인위적이지 않은 스위스 태고의 자연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장식을 하고, 스위스 숲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멀리, 혹은 캘린더 속에서나 보았던 스위스의 그림같은 풍경의 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알프스의 숲, 나무, 바람 등의 자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스위스여행박람회를 통해, 참여하는 이들이 잠시라도 스위스의 자연을 속속들이 오감으로 느끼며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스위스 각 개성 넘치는 지역에 대한 정보교류와 실질적인 세일즈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스위스 여행 박람회는 취리히, 루체른 호수 지역, 베른, 생갈렌 보덴제 지역, 발레 지역, 인터라켄, 루가노 호수 지역 등의 지역 관광청, 필라투스, 샬트호른, 티틀리스, 체르마트의 케이블카 회사, 베르니나 특급, 빙하특급,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같은 철도 회사, 허츠 렌트카, 귀벨린 보석 및 시계, 스위스 트래블 센터, 스위스 퀄리티 호텔 등의 업체 등 19개 지역 22명의 파트너가 참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한편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행사 직원은 2월 15일(수) 14:30 부터 17:30 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 홀로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단,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